



2006년을 제2의 도약기로 선언한 서부지회

회원 권익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서부지회 관할인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랫동안 한 동네를 지킨 터줏대감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다. 오래도록 한 자리를 지키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애써온 서부지회는 더욱더 단합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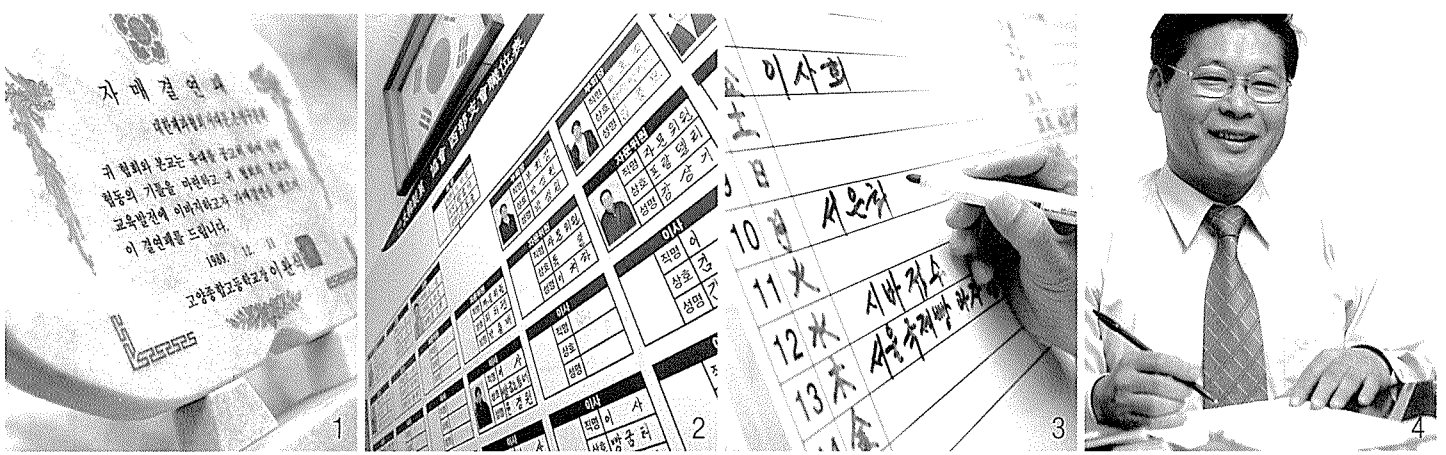
글_홍선화 기자 · 사진_이성우

지난 10월 7일, 오후 3시가 가까이 되자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연희동 서대문구청 앞에 위치한 서부지회 사무실에 빗방울이 고인 우산을 털며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루종일 일이 많이 바빴던지 급한 마음에 일하던 옷차림새 그대로 달려온 사람도 보이고,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에 일손을 놓고 사무실에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합쳐져 운영되는 서부지회 이사들이다.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리는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이하 Siba 200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들의 출품을 독려하고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베이커리 축제를 즐기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사회가 소집돼서 부랴부랴 모인 것이다.

제품 기술력 향상과 마케팅 강화에 초점

서부지회의 이사회는 부정기적으로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되는데 김재봉 사무국장이 각 이사들에게 이사회 날짜와 시간을 통보하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대부분의 이사들이 참석해 심도있는 토의를 한다.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 서로 긴밀하게 각 지역의 제과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회원 업소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올해 Siba 2005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임원들이 적극 나섰던 서부지회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건과 및 콩피즈리 품목에 출품한 김삼범 회원과 화과자 품목에 출품한 이용호 회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회원이 상을 받았다. 그동



1 장학회를 구성하여 고양종합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부지회는 제과업계의 인력수급에 한문했다. 2 서대문구와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부지회를 이끌어가는 임원진.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협회' 회원에게 도움을 주는 협회. 회원들이 항상 찾는 협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3 상황판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서부지회 10월 일정. 서부지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봉 사무국장은 매달 지회 일정을 상황판에 꼼꼼하게 기록해 임원들에게 수시로 알려준다. 4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신홍중 지회장.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는 서부지회를 진두지휘한다.

안 회원들의 기술 향상과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한 제품 세미나를 개최해온 서부지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력 강화 및 매출 향상을 위한 갖가지 세미나를 마련하여 계속된 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회원들의 마케팅 가이드로 나서 예전의 활력을 다시 찾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과우친목회, 적극적인 협조로 지회 활성화

가득이나 침체된 경기로 제과점 매출이 확 떨어진데다가 요 몇 년 새 문 닫은 제과점이 부쩍 늘어난 탓에 회원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자 서부지회도 잠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서부지회가 힘겨워할 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며 도움을 준 곳은 다름아닌 과우친목회(회장 강동희)이다. 서부지회를 음으로 양으로 돕는 과우친목회는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회 일이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헌신적으로 지회 운영을 뒷받침한다.

과우친목회는 서부지회 전 임원과 현 임원들, 서부지회를 사랑하는 원로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지회의 큰일은 물론 갖가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준다. 또한 매달 둘째주 금요일에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돈독한 친목을 쌓는 한편 지회에 어려움은 없는지, 도움 일은 없는지 살뜰하게 살핀다. 다른 지회·지부와 달리 정기적으로 이사회 모임을 갖지 않아도 지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데는 과우친목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회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앞장서는 각 이사들의 한결같은 지회 사랑 덕분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서부지회의 자랑거리, 청결한 위생관리

서부지회 관할인 서대문구와 은평구는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랫동안 한 동네를 지킨 터줏대감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다. 서부지회 또한 1968년에 보급자리를 꾸민 지회 사무실을 지금까지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최신식 사무실에 비하면 한없이 낡고 허름한 사무실이지만 서부지회의 오랜 전통만큼이나 연륜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이라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것. 더군다나 사무실이 서대문구청 바로 앞에 위치해 구청과 연계되는 행정 처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딱 중간 위치여서 회원들의 방문이 용이하다는 점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2003년부터 지회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재봉 사무국장은 구청에서 오

랫동안 재직하다 정년퇴직 후 곧바로 서부지회와 인연을 맺어 각종 행정 사안을 푼부러지게 처리해 회원들의 편의를 돕는다.

서부지회 관할 회원업소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자랑거리는 전국에서 가장 위생상태가 좋다는 것. 위생검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할 구역인 은평구에 위치해 매장은 물론 공장까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기 때문이다. 11월 중순에는 서부지회의 자율지도원이 각 회원업소를 돌아다니며 매장과 공장 위생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 서대문구는 신현철·추한명 부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은평구는 박성원·임중모 부회장이 단 한군데도 빠짐없이 회원 업소를 방문해 꼼꼼하게 체크한다. 해마다 12월 초만 되면 서울시 위생과의 위촉을 받은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위생검열에 대비해서다.

구청과 연계해 나눔사랑 실천

회원들의 단합과 권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서부지회는 대외적으로는 척사대회, 봄과 가을에는 단합대회를 개최해 돈독한 친목을 도모한다. 회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신홍중 지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과감하게 변화를 모색하던 서부지회는 이제 눈을 돌려 자신들보다 더욱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몇몇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단순히 성금으로만 불우이웃을 도왔지만 올해부터는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청과 은평구청과 연계해 구청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 광장에서 '사랑의 빵 나누기' 행사를 함께 열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증해 나눔의 정을 베풀기로 했다.

"서부지회의 변화를 알리는 첫 단추가 된 '추석맞이 사랑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앞으로 관할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이어지도록 내실을 다질 것입니다."

서부지회가 불우이웃 돕기 외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산악회 활동이다. 지난 10월 21일 16명의 회원들이 모여 발대식을 한 산악회는 임중모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당일 코스로 등반을 하며 회원들과 친목을 쌓을 계획이다.

회원과 임원들이 푼푼 뭉쳐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일이면 일을 신명나게 하며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채비를 하는 서부지회의 모습은 내년이면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서부지회의 모습에 제과업계의 활력을 기대해본다. ☺